



과학기술부

제3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07~'11) 공청회 개최



과학기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는 제3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시안을 마련하고 한국원자력학회와 함께 각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공청회'를 5월 18일(목)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향후 5년간의 국가 원자력 기본계획인 제3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시안에 대해 발표하고 패널토론(좌장 : 이문기 국장)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2007년부터 추진될 '제3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그동안 추진된 원자력진흥종합계획과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되, 고유가 지속과 기후변화협약 발효,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4원칙' 등 국내외의 최근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종합계획으로 수립되었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해수담수화용 SMART 원자로 개발 및 제4세대 원자로 국제공동개발 추진, 원자력

수출 산업화 방안 수립, 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기술 개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적기 완공, 방사선 연구 인프라 구축, 선진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 관리체계 구축, 테러에 대비한 국가 물리적방호 시스템 구축 등의 계획을 담고 있다.

동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될 경우 2011년 말에는 세계 5위의 원자력 기술수준 달성, 친환경 지속가능 국가 기반 에너지로서의 기여 증대, 암 치료를 통한 국민 복지 증대, 기초과학 활성화와 고부가가치 산업창출과 함께 원자력기술의 활발한 해외 수출 등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지난 '제2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성과로는, APR1400 표준설계 인가 획득,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 확정, 해수담수화용 SMART 기본설계 완성, 한국형경수로핵연료 PLUS 7 개발, 방사선분야 진흥을 위한 방사선이용진흥법 제정, 정읍방사선 연구원 설립을 통한 방사선이용기술 개발 확대, 권역별 사이클로트론 설치·운영을 통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지원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원자력기술이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하였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과학기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원자력 관계기관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원자력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제3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자연방사선 이해하기 체험사업 실시

- 학교운동장, 공원 등에서 방사선 검출 학습체험 -

과학기술부는 원자력과 방사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과학체험교육의 일환으로 앞으로

3년간 전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휴대형 방사선 측정기를 활용한 방사선측정체험사업」을 5월부터 실

시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초·중·고 학생들이 운동장, 공원 등 생활주변에서 직접 자연방사선을 측정하고 그 측정결과를 기록·비교하여 서로 토론하는 현장 체험학습으로서 자연계에도 많은 방사선이 인간과 공존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또한 방사선측정기를 사용하여 방사선 차폐실험, 방사선의 성질과 종류, 거리에 따른 감쇠현상 등을 방사선실험키트와 연계시켜 실습토록 함으로써 방사선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여 막연한 공포심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05년부터 시작된 동 체험사업은 그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선이 두렵다'라는 설문에 대해 실험전과 실험 후의 조사결과를 보면 실험전의 42%에서 실험 후 17%로 크게 감소하여 청소년들의 방사선에 대한 이해도가 증가하였음이 증명되었다.

올해는 전국 50여 개의 초·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사선체험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며, 앞으로 3년간의 체험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방사선에 대하여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과학 탐구력도 길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IAEA 방사성폐기물안전협약 평가회의 참가 - 우리나라 방사성폐기물안전관리를 국제적으로 평가 -

과학기술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5월 15일~24일까지 개최될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 안전 공동협약』평가회의에 김승봉(金承峰) 원자력안전심의관을 수석대표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주) 등의 관련전문가 12명의 대표단을 파견한다.

평가회의는 매 3년마다 개최되며 그 동안의 방사성폐기물안전관리 이행내용을 체약국 상호간 평가하는 회의로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부지선정 내용과 방사성폐기물안전관리

이행현황 등을 포함한 국가보고서를 지난해 10월 IAEA에 제출한 바 있다.

금번 회의에서는 각국이 IAEA에 제출한 국가보고서에 대한 요약발표, 질의·답변 및 평가 후 주요 개선사안을 도출하여 의장보고서를 채택한 후 각국에 권고를 하게 되며, 우리나라는 IAEA 권고사항을 포함하여 주요국의 안전성 확인활동에 대한 최근의 국제동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내 방사성폐기물안전관리체계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